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록 제67호 [매체]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6년 9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IHDN) 주소 : 138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경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idi.or.kr 디자인 : 디자인로드 www.cool2.com 인쇄 : (주)동명인쇄 T. 492 5323

'현대정신' 잇는 일에 사명감 스타가 되기보다는 조직과 하나되는 경영자 될 것

머릿글 성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정종기

9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커버스토리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경영이야기 CEO전문기자 김성희

지자체특강 콤비마케팅연구원 원장 김광호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사)밝은가정협의회 회장 조동춘

회원&연구원소식 / LMI & YOU

헤어경영학 헤어이미지 컨설턴트 이지수

세무칼럼 UCS ASSET Consulting 대표 김미라

조순칼럼

표지인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2006 September

9

코리아 파이팅!



5번-MF 김성원 / 12번-FW 이승조 / 14번-DF 박기남 / 25번-FW 이일엽

독일 정신지체인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현대홈쇼핑이 공식 후원합니다

필승! 또 하나의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그날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칠 때 그 열광의 한켠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또 하나의 월드컵 대표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붉은 옷을 꺼내입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응원가를 불러주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 대~한민국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 대회기간 : 2006년 8월 26일 ~ 9월 17일 (23일간) •

제 4회 독일 정신지체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공식후원사

쇼핑의 명가 家 현대 홈 쇼핑 Hmall
HYUNDAI HOME SHOPPING

지혜시대를 주도할 한국 준비가 필요하다

정종기 성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정보사회는 지혜의 사회로 부단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화가 너와 내가 씨앗이 된 디지털이라면 지혜는 너와 내가 함께 한 우리라는 모듬 틀의 개념이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혁신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정신적인 메카가 대한민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예로부터 지혜의 근본이라 자부하는 대중 종교들이 한국 땅에 도달하면 시들던 꽃들도 생기를 얻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는 한반도에서 대중적 종교로 꽃을 피웠고 공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교는 중국에선 줄기가 시들었지만 한반도에서는 꽃을 피웠다. 그뿐인가. 로마의 핍박 속에 순교를 거듭하던 기독교는 대서양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 어렵사리 한반도에 전파되면서 성공적인 지혜의 열매를 맺었다.

모든 지혜는 다양하게 변하지만 한국적 지혜가 종교를 감싸며 지고의 지혜로 다듬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문화에, '우리'라는 특질로 발효시키는 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를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와 함께 나눠야 한다.

너와 나, 우리라는 개념은 정보화의 불량품들을 걸러내는 지혜의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지혜에 허기져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 우리가 만든 특화된 지혜들을 한류(號)에 실어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그 동안 산업사회에서 정신적 공허함에 허덕인 자들은 값비싼 물품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 후 도래한 정보사회에서는 네 것과 내 것 가르기에 지나치게 열을 올렸고, 결국 이러한 주장의 마찰은 사회의 갈등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산업화와 정보화가 빚어낸, 지나침이라는 이름에 합작품이다. 산업사회는 풍요 속에 빈곤을 가져왔고 정보사회는 지나친 개별적 주장으로 갈등을 야기했다. 그 결과 현재 사회에서는 화합과 나눔의 지혜의 시대를 갈망하게 된 것이다.

세계는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의 끝물에서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대명사인 중국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고, 다계층

다문화를 보유한 인도는 IT산업을 근간으로 신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제가 꿈틀거리니 두 나라를 싸잡아 친디아(Chinda)라 하며 집중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과 인도는 한국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는 인도나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선행한 경험을 중시한 것이라기보다 한국의 '우리' 정신을 본받아 자국의 지혜의 시대를 준비하려는 속셈이다. 또 인도나 중국이 못한 종교의 발전적인 대업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라는 정신이 함께 한 새마을운동에 대해 인도와 중국은 그 위력을 알고 있다.

한국은 지혜의 샘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혀야 한다. 아무리 퍼 마셔도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을 기대한다. 그를 위해 한국은 제대로 교육하고 깨달으며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를 만드는 방법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디서나 환경, 문화와 전통에 지역특성을 발효시켜 지혜를 다듬는 곳에 한국이 도우미가 되면 좋겠다. 종교의 꽃들을 피운 경험과 가난을 극복한 민족이기에 우리의 정신은 수많은 국가에 지혜를 여는데 이상적이다. 지혜의 시대는 산업사회나 정보사회 보다 훨씬 긴, 생활의 바탕을 만들 것



이다. 정보화의 허상을 실상으로 돋보이게 하는데 앞장선 민족이 대한민국이기에 지혜라는 허상을 충분히 실상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민간섹터가 중심이 되어 세계를 지혜의 시대로 인도해야 한다. 이는 국가마다의 정치적 한계가 있기에 자발적인 민간적 차원에서 환경과 문화와 전통을 다듬고 여기에 일류성이라 하는 지역특성을 버무려 나가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한민족은 지속적으로 버무리고 발효시키는 큰그릇을 세계에 나눠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혜의 마인드로 문화와 환경을 다듬고 국가마다의 특성을 효소로 삼아 정보화 후기 사회를 한국의 경험적인 지혜로 리드해야 할 준비가 필요하다. **人間**



정종기 학장

1957년 생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필리핀 만유엘 루이스 케손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학습치료학회 회장, 인간관계회복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며, 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대학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테마마을조성 농진청 전문교수,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감사 등 지역사회개발 컨설팅 활동도 펼치고 있다.

9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이병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한국방송공사 정책기획실, 보도본부 / 서울경제신문 정경부 차장, 부장 / 한국일보 경제부 부장, 논설위원 / 예금보험공사 채권관리실담당 이사 / 새천년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부소장,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대통령비서실 국내 언론2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겸 정무팀장, 홍보수석비서관 / 노무현대통령 홍보문화특보

참여정부,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1469회 9월 7일 조선히텔 2층 오키드룸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여당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는 등 정치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당·청 간 갈등기류를 조기에 차단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일부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임기 동안은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관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참여정부의 지난 3년은 국민 체감 수준은 미흡하지만 각 분야에서 국가 장기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실패라는 쓴소리를 피해가기 힘든 형국이다. 그렇기에 참여정부는 앞으로 남은 2년을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는데 국정운영 목표를 뒤야 할 것이다.

이병완 비서실장 또한 "현재 민생의 어려움은 IMF환란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참여정부는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언론인 생활을 거쳐 현재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을 초빙하여 참여정부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한국호(號)의 비전달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 소장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국제법 석사 / 美 인디애나대 대학원 신문학 수료 / 美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수료 / 고려대 국제법 박사 / 동아일보 정경부 차장, 조사부·지방부 부장, 논설위원 / 동아일보 통일연구소 소장 / 동아시아연구회 부회장 /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회 논설위원
<저서> 테러리즘과 저항권, 통일의 조건과 전망, 북한 어디로 가나, 국제테러리즘 연구 외

테러리즘은 왜 일어나는가, 그 뿌리깊은 원인과 해결방안

1470회 9월 14일 조선히텔 1층 그랜드볼룸

2001년 9.11 테러 및 이에 연이어 발생한 탄저균 테러 그리고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열차 테러사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발생한 테러사건들은 국제사회를 일순간 공황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은 근대화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근대화로 인해 과거 고립되었던 지역이 통합되고, 그에 따라 불평등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경제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등의 현실적 불만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테러리즘으로 반영되어 구조적인 모순과 기대감 상승 또는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국제관계는 전통적 안보 연구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치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연원을 알 수 없는 수많은 테러에 맞선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에 맞선 테러가 확산되며, 다시금 테러는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테러'는 안보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말이 되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논설위원 출신의 저명한 보수논객으로서 테러리즘 관련 논문으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고대 로마부터 오사마 빈 라덴에 이르기까지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과 실태에 대해 논의해보고 올바른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경영자연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관 한국코엑스 사장

서강대 영문학과 졸업 / 현대종합상사 이사, 홍콩법인장, 중국본부장, 사장, 부회장, 상임고문 / 駐中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 한·터키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한·러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한·베트남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 서울컨벤션협의회 회장
(상훈) 대통령 산업포장, 자랑스런 서강인상, 제37회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차

글로벌시대의 선진국 경쟁코드, 전시컨벤션산업의 과제

1471회 9월 21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룸

한국무역협회의 자회사인 코엑스(COEX)는 1986년 한국종합전시장으로 설립돼 국내에서 전시컨벤션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코엑스는 세계적인 전시컨벤션센터로 비상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코엑스의 정재관 사장은 2002년까지 현대종합상사에서 사장과 부회장을 지낸 뒤 2004년 공모제도를 통해 코엑스 사장에 선임되었다. 이런 정 사장은 새로운 꿈을 펼치기 위해 여념이 없다. 그 꿈 중 하나가 코엑스를 '문화의 향기'가 감도는 격조 높은 전시공간으로 거듭 나가게 하는 것이다. 코엑스가 펴고 있는 전시산업에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코엑스를 글로벌 전시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시대에 선진국간 경쟁코드가 문화로 이전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코엑스의 국제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그의 또 다른 구상은 전시컨벤션 부문의 한중일 협력이다. 전시컨벤션산업의 본고장인 유럽과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일본, 중국과 힘을 합해야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 전시컨벤션 시장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재관 사장을 초빙하여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 전시기업의 전형을 갖춘 코엑스의 성장사와 함께 전시의 품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시대 전시컨벤션산업의 과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서울대 법대 졸업 / 1974년 현대그룹 입사 / 현대중공업 영업부 부장 / 현대전자 기획실 상무 / 현대아산 남북경협사업본부 전무, 본부장 / 현대아산 상임고문

남북경협사업의 현황과 전망

1472회 9월 28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룸

50여 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남북의 길을 열어, 화해협력 시대의 첫발을 내딛었던 금강산 관광이 어느새 관광객 150만 명을 넘어섰다. 1998년 11월 금강호가 첫 출항한 뒤 금강산은 이제 남북의 평화의 장이자, 통일의 초석이 될 교류협력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측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끊고, 북측도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인력을 모두 철수시키는 등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더구나 북측이 최근 개성관광 사업을 롯데관광과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대의 대북사업 위기론이 불거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는 지난달 초 금강산에서 있었던 정몽헌 회장 3주기 추모행사에서 개성관광 사업은 정몽헌 회장이 북측과 합의한 사항이고 일부 투자도 이뤄졌기 때문에 현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추모전문을 보내와 '금강산 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오히려 북한이 대북사업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현대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대는 새로운 금강산 관광코스를 신설하고, 골프와 쇼핑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는 등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30년 넘게 현대그룹에 몸담으면서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현대아산을 이끌고 있는 윤만준 사장을 초빙하여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성과와 현황을 들어보고 향후 사업에 대해 전향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46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8월 17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소셜 디자이너, 희망제작소가 꿈꾸는 한국의 미래상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2000년에 일본을 3개월간 여행한 적이 있다.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때 쓴 책이 <박원순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기행-가와리모노를 찾아서>이다. 가와리모노란 뭔가 이상한 사람들, 변종을 뜻한다.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평생 하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저널리스트라며 명함을 주는 이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언론인을 생각했다. 그런데 언론

인이 아니라 평생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강연하여 먹고사는 사람들이 '저널리스트'였다.

바로 이런 것이 희망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 각자가 뭔가 하나를 평생의 주제로 삼아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 연구하여 공유하는 사회분위기, 사회시스템, 사회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다.

시민단체가 상당부분 정책을 이끌어온 우리사회 정당, 언론이 정상화되어야 사회 발전할 수 있어

지난 십 수년간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왔다. 처음에는 해외를 다니면서 외국은 어떻게 시민운동을 하는가를 공부했다. 그렇게 세계의 많은 도시들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도시의 도로, 건물, 박물관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재작년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3개월간 독일을 돌면서 독일의 문화, 예술, 생태적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본다. 세계 10대 대국이라는 국가경제와 이만한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혼란을 거듭하는 것은 준비된 구체적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나라당은 여의도연구소라는 것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열린사회정책연구원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원에 '연구원'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름만 위원이던 당료들로 사실상 당료들 월급으로 돈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유치한 말장난과 감정적인 대응들만 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때부터 두세 달 동안 정권인수위원회를 꾸려 정책을 가다듬어서 시행을 한다. 그렇다 보니까 확고한 정책을 가진 정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당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언론을 보자. 지금의 언론은 깊이 있는 사회 통찰력과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터지면 온갖 추측으로 선정성 기사를 마구 쏟아 내다가 어느 날 관심에서 사라진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긴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시민단체가 정책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을, 참여연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들며 재벌기업의 소액주주운동을 주장했다. 내가 사무처장을 할 당시에는 78개 법안을 청원해서 그 중 절반이 통과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보장법도 전적으로 시민단체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당이 해야 할 일을 그동안 시민단체가 해온 것이다.

물론 정당도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상대적으로 재야나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힘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려면 본래의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언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부족한 게 많지 않나 싶다.

선진국은 각각의 전문연구기관이 미래를 고민하고 연구해 우리의 국책연구소, 재벌기업 연구소만으로는 미래설계 힘들어

98년 아이젠하워재단 초청으로 두 달간 미국의 여러 분야를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은 서로 이념적 성향은 다르지만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국가적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도시문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도시연구소도 있었다. 랜드연구소는 외교국방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일대의 싱크탱크들을 다녀봤다. 스탠포드대학이 있는 팔로알토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는 'Institute for The Future'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다. 그런데 연구소가 아니라 마치 디자인센터 같았다. 이곳은 방법론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측학만을 연구하고 있었다.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해서 책으로 냈는데, 10장의 사진이었다. 연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매우 혁명적이었다. 그곳에 대한민국 서울의 지하철도 있었다. 그곳 디렉터가 한 국사회를 규정하길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했다. 미국의 작은 연구소 디렉터가 한국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인구부터 자원까지 지나칠 정도로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일본의 주요한 싱크탱크들을 한 바퀴 돌아왔다. 그 중에는 일본의 재계가 미래의 일본과 일본인들을 최고의 나라와 국민들로 만들자고 해서 만든 일본종합연구소가 있었다. 단순히 연구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 쪽의 컨설팅을 하는 노무라연구소도 있었다. 세계의 여러 연구소들을 다녀 보면서 나는 과연 이처럼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곳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책연구소이다. 예를 들어 총리실에 인문사회연구소가 있는데 그 산하에 서른 몇 개 연구소가 있다. 대부분 특정 부처 밑에 있다. 민간연구소는 삼성경제연구소처럼 재벌기업들이 만든 연구소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연구소들이다. 이 정도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분히 설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설계가 이런 연구소 한두 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국책연구소는 기본적으로 해당부처의 압력이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의견이 모두 똑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나는 과거 20세기에 굉장히 소홀했거나 경시됐던 것이 21세기에는 중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문화와 예술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작년에 미국에 가서 만났던 한 교민 변호사가 부인과 휴가를 스페인 빌바오로 갔다 왔다고 했다. 그가 휴가를 빌바오로 간 이유는 바로 구겐하임미술관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도 있는데,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을 보기 위해 1년에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한다. 그 작은 도시가 미술관 하나로 먹고산다. 아시아지역에는 아직 구겐하임미술관이 없는데, 만약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치한다면 그 도시는 그것만으로도 먹고 살 것이다. 아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올 것이다.

2004년 7월호에 뉴스위크지는 세계 10대 위대한 국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독일이 선정됐다. 독일이 선정된 이유는 동독 치하에 있었던 베를린 일부 지역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스튜디오를 조성하자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그 동네는 예술품으로 가득한 예술의 거리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많은 관광객을 이끌어내는 자석과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도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했다.

우리나라에 예술의 거리라면 그나마 인사동이 있는데 지금 음식점으로 뒤덮여 있다.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서 경복궁에서부터 인사동, 창경원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 관광객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관광단지 하나 제대로 못 만든 나라가 지금의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맞서왔다. 그런데 신개선문에서 보면 정말 한 도시를 이렇게 창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리는 정말 잘 설계된 도시이다. 국립박물관, 퐁피두센터 등 도시의 대부분을 30대 초반의 건축가들이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미테랑 대통령의 그랜드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정치인도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 바탕이 있어야 도시를 만들고 사회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둘째, 생태적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개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독일 남부지역을 가보면 어느 도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태양열 에너지만으로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도시를 독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북유럽은 특히 대체에너지에 굉장한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방과 근대화가 늦어지면서 19세기와 20세기에 많은 고난을 거듭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부모와 형님세대는 고난의 삶의 궤적을 갖고 있다. 나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사꾼이셨는데 내가 잠에서 깨어 있는 순간에 두 분이 잠들어 계신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일하셨다.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던 우리의 선배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또 백년은 죽어라 쫓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생태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다시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4월부터 지역을 돌면서 우리 사회에 좋은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찾아 뵙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훌륭한 분들도 많고 반면에 한심한 일들도 많다. 요즘 작은 시골도시를 가보면 20층짜리 아파트가 농촌지역에 커다란 촌을 이루고 있다. 시골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아파트단지는 계속 늘고 있다. 결국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의 지하철도 광주지하철이 1년에 25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광주지하철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부산지하철은 현재 1000억 원이 넘는다. 대구지하철도 500억 원이다. 지금 전국에 문화예술회관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큰 공연장은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쓴다. 작은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데 무조건 크게만 짓고들 있다. 전국의 도로도 과잉상태다. 어디를 가나 4차선 이상의 도로가 깔려 있다. 농민들이 농사는 안 짓고 자기 땅 앞에 고가도로가 생기기를 바라게 만들었다. 지금 이러한 예산낭비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알뜰하고 문화적이며 생태적인 삶이라고 본다. 지금 대형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도 문화예술회관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문화가 들어오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하드웨어에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막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 그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를 평평 놀리고 있다.

경제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길 언제나 중앙은 퇴행화되기 마련이라고 했다. 퇴행화되면 그 사회는 멸망하고 변경(邊境)에 있던 세력이 다시 중심부를 장악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건강한 변경이 없다. 서울공화국이다 보니 서울이 병들면 그것을 대체할 지방이 없다. 뭐 하나가 유행하면 전국이 유행할 정도로 다양성이 없다. 지금 대체적 아이디어, 대체적 정책, 대체적 문화가 없는 상황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개성 있는 지방문화와 지역경제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이 또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은 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지난 몇 달간 지방을 돌면서 농업이야말로 21세기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도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자인데 이들이 시골로 가면 재벌이 될 수 있다. 농촌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남 장성군의 30대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 대형마트에 1년 내내 일정한 품질과 양의 농산품을 공급할까에 주목했다. 그래서 전국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 역시 농사를 짓긴 하지만 혼자서는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로 인해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하나 농업벤처CEO연합회가 있다. 그 중 해남에서 참다래를 취급하는 분의 경우 매출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 물론 농업만으로는 안 된다. 농업에

가공과 유통이 함께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다.

요새 시골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전부 도시로 나가서 폐교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유독 충남 아산에 있는 한 공립초등학교만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천안이나 아산시에서 세 살만 되면 취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고 한다. 그 학교 선생님 몇 사람이 생태적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학부형, 선생, 전문가들이 다함께 만든 결과이다. 농촌이면 학교가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만났던 대사님들 중 몇 명은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현행 교육법은 아무리 영어를 잘 해도 초등학교 교사가 못 된다. 그런 교육법은 고쳐야 한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으로 승부를 하겠다면 적극 찬성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곳에 갈 대사님도 많고 대법관님도 많다. 어떤 로펌 대표도 사회와 교사로 가겠다고 했다. 로펌 대표가 사회학을 가르치고 대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어디 있겠는가. 문화, 교육, 지역경제, 농업 그 무엇이 되었던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희망의 지역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NPO와 NGO의 활성화가 우리사회의 경쟁력 좌우할 것

또 하나의 큰 방향은 NPO(Non Profit Organization)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정부와 기업이라고 하는 큰 섹터가 있다. 그러나 그 외에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NPO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가 결국 앞으로 그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성인인구의 절반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매일 800만 명의 풀타임 노동자가 일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 미국 전체 GDP의 7%는 비영리영역이 생산한다. NPO가 그렇게 중요하다. 현재 희망제작소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NPO도 들어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훌륭한 경력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일선에서 은퇴한 인재들이 많은가.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좋은 공공적 업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뱅크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은퇴한 이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용해 우리 사회에 이롭게 하고자 한다.

외교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643만 명이다. 세계 4위이다. 그렇게 많은 한인들을 우리는 지금 아무런 활용을 못하고 있다. 나는 이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 조사 연구한 결과를 하나의 사이트에 올려 전 세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볼 것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는 新신사유람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온다. 그러나 나는 정말 실천적인 고민을 갖고 외국에 가면 배워야 할 것이 수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앞서 말했던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시장학교를 한번 열었다. 시장도 준비가 되어있어야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장성군의 '장성아카데미'가 매우 성공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 다른 변형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 희망제작소 안에는 공원연구소, 간판연구소 등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소홀히 했던 아주 작은 주제의 연구소들을 수없이 만들어갈 생각이다.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들이 일을 하고 우리 단체는 중간통로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러다가 원활히 작동되면 독립도 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진리는 현장에 있는 것

생활 속의 아이디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도울 것

모든 진리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기업정책은 현장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면 된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희망제작소의 홈페이지를 보면 실시간 아이디어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이 중에는 이미 실천된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로 임산부 프로젝트이다. 이 아이디어는 한 주부의 경험에서 나왔다. 임신 2개월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인데 남들이 볼 때는 임신부인지 알기 힘들다. 이를 위해 임신부임을 표시하는 배지를 만들어 달아주고 배려를 해주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부인과학회, YWCA에 제안해서 같이 하게 되었다. 한 평범한 여성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단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당기관에 전달해 주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전달하고 나면 정리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받는다. 생활하다 보면 이것은 조금만 고치면 참 관찰을 텐데 하는 아이디어들이 곳곳에 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모른다. 이것을 우리 희망제작소에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체계적으로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전달하여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10년만 한다면 한국사회가 적어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人間)



'현대정신' 잇는 일에 사명감 스타가 되기보다는 조직과 하나되는 경영자 될 것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 오경근 연합뉴스

현정은 회장

1955년 생으로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취득했다. 미국 패러디킨슨대학교에서는 인간개발학으로 석사를 취득했다. 대한여학사협회 재정분과 위원을 역임했으며, 걸스카웃연맹에서는 국제분과위원 및 중앙육성위원을 거쳐 현재 중앙본부 이사, 홍보출판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3년 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지금 하는 일에 보람과 사명감도 느낍니다."

정몽헌 회장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지 3년이 지났다. 현정은 회장 본인의 말처럼 아무 준비 없이 경영에 나섰던 그녀지만 회장 취임 후 현대 그룹은 경영권이 안정화되면서 내실을 다져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현대그룹은 전 계열사가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할 정도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재도약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현 회장은 지난달 금강산에서 열린 故 정몽헌 회장 3주기 추모행사에서 "현대건설은 원래 현대그룹에 속해 있었다"며 정몽헌 회장이 사재를 털어 넣으면서까지 회생을 위해 애썼던 현대건설 인수를 하반기 최대 경영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현 회장은 현대건설이 현대 상선의 주식을 8.3%나 갖고 있어 현대건설 인수 여부가 현대그룹의 경영권 확보와도 연계되는 만큼 인수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과다경쟁으로 인한 매각가 상승이 가져올 폐해를 걱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한편 남북정세 악화와 개성관광 사업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 회장은 "현대의 남북경협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새로운 관광상품을 선보이면서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로만 나누는 기업 경영의 냉정한 경쟁체제에서 '여성'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색깔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현 회장은 최근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세심하고 부드러운 감성경영을 펼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이 조직과 조화됨으로써 꿈이 실현된다고 믿는 현정은 회장.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스타'가 되기를 거부한다. 그런 그녀에게서 지난 3년간의 시련기와 극복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현대그룹의 신 개척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현대그룹의 수장이 되신 지 3년이 다돼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룹 경영에 나선 3년간의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몽헌 회장이 돌아가신 후 아무런 준비 없이 경영에 나서게 돼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젠 어느 정도 여유와 자신감을 갖게 된 거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간 현대그룹을 둘러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 임직원들이 "현대그룹을 다시 건설하자"는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회복시킨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한국경제발전과 민족공동번영의 상징인 남북경협사업에 크게 기여해 온 현대그룹의 남다른 기업정신을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부터 현대家は 물론 해외기업들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판이 되어 오히려 그룹의 최대 과제이던 지배구조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겐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대적 M&A나 약육강식이 당연시된다지만, 친족기업인 KCC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두 차례나 예기치 않은 경영권 위협을 받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떠올려 보게 됐죠. 식구끼리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인간관계에서는 경제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사실 KCC와 현대중공업 모두 외국 투기세력으로부터 현대그룹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외국계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은 전혀 없었고, 지금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영권 안정을 위해 내부 우호지분을 40% 넘게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 안팎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경영권이 안정된 만큼 앞으로는 수익성 제고, 신성장사업 확충, 신규투자 등 기

업 본연의 업무에 총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머니인 김문희 여사의 경영권 간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봐서 오히려 어머니가 섭섭해 하세요. 한 달에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인데 뒤에서 경영간섭을 한다는 소리는 근거 없는 루머죠. 어머니는 평생 교육에만 전념해 오신 분이데, 경영권 분쟁 때마다 어머니가 거론되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는 정몽헌 회장 살아생전부터 순수하게 시집간 딸과 사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현대 지분을 매입하신 겁니다. 의결권은 전량 모두 제게 주셨고, 저와 지이, 영이, 영선에게 상속한다는 공증도 이미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초 금강산에서는 故 정몽헌 회장 3주기 추모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모제라고 이름 붙인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간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몽헌 회장을 제대로 추모하고 기릴 시간이 없었어요. 올해는 탈상의 의미를 지닌 3주기이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추모사진전과 추모음악회 등 고인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 있는 사진을 정리하느라 새벽 3~4시까지 며칠 밤을 새면서 사진 속의 고인과 대화하면서 남다른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몽헌 회장은 현대그룹 발전과 남북경협사업에 큰 공로를 세운 분입니다. 특히 민족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를 개척한 점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하고, 또 올바르게 평가되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수련회를 겸해 회장님과 금강산 산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입사원들과 함께 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지만 그 중에 잘난 자식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신입사원들은 제게 모두 잘난 자식들입니다. 금강산 수련대회와 산행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현대그룹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내며 서로 합심하여 온몸으로 '현대정신'을 체득하고 진정한 현대그룹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현대그룹만의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신입사원 수련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 수가 지난 2004년 170여명에서 올해는 320여명으로 50% 이상 늘어나 그 동안의 그룹발전을 실감케 해주었습니다. 신입사원들과 현대그룹의 미래 비전을 나누고, 함께 땀 흘리며 하나가 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에 저를 비롯한 각사의 전문경영인들이 모두 참석해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하반기 최대 경영목표가 현대건설 인수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셨습니다. 준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습니까.

현대그룹은 지난 2000년 과감한 계열분리를 성공시켰습니다. 현대그룹의 정통성과 현대정신을 함께 공유한 채 자동차, 중공업, 백화점 부문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독립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죠.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원래 현대그룹에 속해 있었고, 정몽헌 회장은 어려워진 현대건설의 회생을 위해 막대한 사재를 털어 넣으면서까지 많은 애를 썼습니다.

현대그룹이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점과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현대건설을 끝까지 지키려 했고, 건설과 연계 시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운반기기 제조, 종합물류, 대북개발사업 등의 사업구조를 가진 현대그룹이 건설을 되찾아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현대그룹은 지난 2004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현대건설 인수를 염두에 두고 착실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현대건설 인수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결국 인수전의 변수는 자금 조달력에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의 해결책은 마련하셨는지요.

오랜 기간 착실하게 컨소시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언급하기 힘들지만 현대그룹과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결국 인수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대건설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합리적인 매각이 형성입니다. 과다경쟁으로 거품이 많이 생기면 인수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인수 추진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 그 폐해를 한국경제가 다시 떠안는 과거의 악순환이 반복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 정몽헌 회장 3주기 추모식



▶ 정몽헌 회장 추모사진전을 둘러보는 현 회장



▶ 현대그룹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현 회장



▶ 현대그룹 신입사원 금강산등반



▶ 신입사원들과 화이팅하는 현 회장

1년째 표류중인 개성관광사업에 롯데관광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故 정몽헌 회장과 북한이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대북사업의 변수는 어떤 것일까요.**

개성관광 문제는 정몽헌 회장 살아생전에 북측과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북측, 롯데관광 등 누구로부터도 공식 제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개성관광 뿐만 아니라 내금강, 백두산관광 등은 현대가 변함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사업 등 현대의 남북경협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입니다. 정치, 안보적 차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현대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이라 확신해요. 그러나 남북경협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등 제반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응책과 함께 새로운 상품개발 등 돌파구가 필요할텐데요.

내금강관광 등 금강산 관광코스를 신설해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재방문율도 높여갈 생각입니다. 내금강관광은 지난 5월에 답사를 마쳤고, 올 가을에 시범관광 및 본관광을 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중이죠.

내금강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제한적으로만 개방되었던 세존봉, 수정봉 코스를 상설화하여 관광객들이 금강산의 다양한 모습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등산 위주의 단조로운 관광이 아니라, 골프와 쇼펄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찾도록 해야죠. 또한 모든 호텔에서 금강산의 비경을 바라보며 플레이 할 수 있는 금강산골프장은 클럽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정몽헌 회장 3주기를 통해 현대그룹은 재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재도약을 통한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청사진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시죠.

현재 현대그룹의 위상은 세계 22위입니다. 올 하반기에 현대건설 인수를 성공시키고 2010년까지 매출 20조원을 달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어요. 현대상선은 세계 해운시장의 조정국면을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선대 확충을 통한 해외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2009년까지 4700TEU급에서 8600TEU급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최첨단 컨테이너선 총 23척을 추가로 확보하여 세계적인 종합해운사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신제품 '루젠(LUXEN)'을 개발해 제품 출시 한 달 반만에 200여대를 수주하면서 인도네시아, 중동, 인도 등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확대를 위한 해외공장 증설 계획에 맞춰 다양한 물류자동화설비의 해외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의 불도저식 추진력과 대비되는 회장님의 감성경영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성경영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 현대그룹이 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 양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면, 21세기 기업의 역할은 양적 성장과 함께 윤리경영과 감성경영 등 질적인 성장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60~70년대 경제성장기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며 임직원들이 밤새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21세기는 시대가 바뀌어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다변화되고 그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종업원, 고객, 더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 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업윤리관을 확립하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강한 믿음을 줘야 해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아래 실천하고 있는 e-mail 보내기, 여름건강식, 수험생 자녀 챙기기 등 어머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세심하고 부드러운 감성경영이 저희 현대그룹 임직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보수적인 현대에서 걸스카웃연맹,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하셨는데요. 그룹을 이끄시는 지금 취미활동이나 관심을 가지시는 사회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자라 그런지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경영일선에 있다보니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솔직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설인수가 완료되고 현대그룹에 대한 큰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룹 임직원들과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31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정신, 지식, 능력을 키우고 그 바탕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각자의 의지가 극대화될 때 사회는 긍정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간의 조화로운 잠재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간개발 연구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는 인간개발연구원이 각계각층의 지도층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데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오셨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를 전 국민적으로 확대시켜 우리 국민들이 조화롭고 발전적인 능력개발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조직의 리더로 진화된 CEO의 성공습관

김성희 CEO전문기자



인터뷰하며 나는 우리 사회의 '진짜' 사장, 회장들을 수없이 만났다. 지면을 위해 정식 인터뷰한 CEO가 100여명, 사적으로 간접 인터뷰까지 감안하면 200여 명이 넘는다.

성공에 정답은 없지만 정석은 존재하는 것 성공의 키워드는 바로 습관

이들을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나는 'CEO는 현대사회의 영웅'이란 것을 뻗속깊이 느끼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솔직히 자기마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세상이지 아닌가. 자신을 통제하고, 조직원을 통제해 한 방향으로 인도해 성과를 내는 이들의 저력과 비결은 무엇일까. 직업상 이유를 넘어 개인적으로 나는 이들 CEO는 만들어지는 걸까, 타고 나는 걸까가 절실히 궁금했다. 그래서 인터뷰 후에도 이들을 귀찮다시피 밀착마크하며 관찰하고 메모했다. 이들을 지켜보며 수십, 수백의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공통인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공의 정답은 없지만, 분명 정석은 존재한다. 나름대로 내가 내린 성공의 키워드는 바로 습관이었다.

나는 이 책 <CEO의 습관>에서 그들의 습관, 정확히는 조직의 리더로 진화시킨 습관을 다루고자 했다. 혹시 일부는 사장과 성공이라는 단어의 결부에 판지를 걸고 싶어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부귀영화 등 외부의 기준에 의한 성공에는 답살이 돌는다면서, 그 말도 옳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성취의 법칙이다.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이뤄나가는 모습을 CEO란 구체적 인물을 통해 투영시켰다는 이야기다. 나는 사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인 CEO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 역시 나에게 가끔 묻는다. "네가 기자하면서 CEO들을 많이 만나 속속들이 인터뷰한다며..., 과연 그들은 무엇이 다르니?" "글세, 한마디로 말하자면 3정과 3심이야. 3정은 긍정, 열정, 진정이고, 3심은 초심, 뒷심, 열심이야. CEO 치고 3정 3심을 갖추지 않은 이는 없더라."

이렇게 대답하면 "애개개" 하며 하나마나한 대답이란 듯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너무 쉬운 것 아니냐. 그들을 벤치마킹, 열심히 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 세상 천지가 모두 CEO계. 그런데도 누구는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거리에서 넘치는 호칭이 바로 '사장'이다. OO 사장님 하고 등뒤에서 부르면 돌아보는 사람이 열에 아홉은 될 것이다. 사장이란 호칭이 이만큼 차고 넘치게 된 것은 한 시대의 트렌드의 반영이 아닐까. 양반, 영감, 선생을 거쳐 사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호칭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숨겨진 욕망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다. 신문사에서 CEO를 전문적으로

김성희 기자

1963년 생으로 연세대와 동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세계일보 전교학신문에서 15년간 기자로 활동하고, 지금은 CEO와 명사들을 전문적으로 인터뷰하고 글을 쓰는 CEO전문작가 겸 기자로 활동 중이다.

마치 수석한 수험생에게 비결을 물으면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잠 꼭 잤어요." 하는 모범답안 내용은 식과 다를 게 뭐냐는 듯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투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은 간단하다. "그래 바로 그게 다른 점이더라. 그들은 교과서적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거야 하고 달려드는 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지름길로 가려는 비결만 찾느라 실행을 미루거든." 하고.

타고난 재능이 아닌 부단한 정진이 CEO 만들어 그들의 바른 습관은 원칙을 지키는 조직문화로 재정립

내가 스스로에게 붙인 별명은 치글이다. 치킨(일반인)과 이글(우리 사회의 리더) 사이를 분주하게 날아다니며 이 세계, 저 세계를 유심히 관찰,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CEO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 인정받는 분들을 자주 접하면서 놀란 것은 의외로 학력이나 집안 등 '출신성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시작은 오히려 남보다 뒤쳐졌음에도 현재의 성과가 남보다 훌쩍 앞서게 된 것은 자신의 차별성을 위해 끝없이 배우는 열정이다.

인간개발연구원 등 각종 CEO 대상 조찬강연회를 가보라. 새벽부터 공부하고 질문을 하느라 열린 CEO들을 볼 수 있다. 아직 병아리 신입사원들은 이 시간에 자명종에 잠을 깨며 부스럭 부스럭 불평할 텐데, 이 시간에 이들은 깨어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CEO를 만든 것은 결코 재능이 아니라 이같이 부단없는 정진이란 게 내 나름대로 결론이다.

이체욱 GE코리아 회장의 강연회에 갔다와서의 '사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인터뷰 인연이 있어 그분의 출판강연회에서 가 인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바로 메일이 날아왔다. 당신의 모자란 부분 세 곳을 지적해 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이었다. 나로서는 머리에 쥐가 날 수 밖에. 50점 짜리 시험지를 보면 지적할 게 수없이 많지만 98점 짜리 시험지를 보며 결점을 찾아내려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하니 말이다. 감동은 그 다음에 더했다. 나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적어 보내 드렸더니 "어려서부터 혀가 짧아 '이해욱'이라 늘 발음해 놀림을 받았었다"고 말씀하시며 지적사항을 열심히 고쳐나가겠다는 다짐까지 덧붙여 메일을 보내신 것이었다.

삼성에 입사할 때만 해도 한강 이남 대학 출신은 자신밖에 없었던 이아기를 이 회장에게 들은 적이 있다. 그가 오늘날 글로벌 CEO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남보다 모자란 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자란 점을 능동적으로 채우려 하는 뜨거운 열정과 겸손한 자세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바른 습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서 몸에 익혀지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잡는다. 그런 점에서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분이다. 기업이 부동산으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알짜배기 후자기업이면서도 본사 사무실을 전세내 이사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문사장의 집무실엔 액자 하나 걸려있지 않다. 남의 집에 못을 박으며 살 필요있겠느냐는 말을 하며 그는 "언제든 방 뺄 준비를 하는 자신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노마드(유목민)가 아니겠냐"고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많은 CEO를 인터뷰하며 나 역시 늘 창 밖을 넘겨보며 환경과 조건에 원인을 돌리는 불평순이에서 내게로 원인을 찾는 거울을 가질 수 있었다. 핑계의 무덤에서 벗어나, 자부심 가득한 삶의 CEO가 되고 싶은 분,

CEO로서 다른 CEO를 벤치마킹하고 싶은 분들께 여기 소개된

49가지의 습관이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내가 인터뷰한 이들에게서 받은 긍정적 에너지의 열기가 그대로 전해진다면 나로서는 그 자체가 성공인 셈이다. **人間**



〈 성공하는 CEO의 주요습관 6가지 〉

- **회사에 일찍이 출근한다** = 서양속담에 '출근순서와 고급차의 순서는 일치한다'는 말이 있다. 국내의 성공한 CEO들은 신입사원 시절부터 출근순서로 넘버원인 경우가 많았다. 성과도 좋지만 일단 근태는 기본이란 게 이들의 한 목소리다.
- **자신만의 작전타임을 가진다** =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과의 대화시간을 가져야 아이디어도 충전될 수 있다. 1주일 단위든, 하루 단위든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만의 작전타임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었다.
- **정리정돈을 잘한다** = 집무실을 방문하면 대부분 책상 정리정돈이 잘 돼있다. 비서가 해주는 데도 한계가 있게 마련. 늘 당면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 없어서다.
-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 =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에 새기고 있다.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므로 신뢰가 생기고, 상호 윈윈의 전략을 택할 수 있다. 공짜성공은 이루기도 어렵지만 오래 가기도 힘들다는 것을 안다.
-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 적자생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말은 바로 CEO를 위한 말이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든가, 자신이 편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 이들은 늘 하루의 일상, 인맥, 금전 등을 일일이 기록해놓는다. 모 사장은 10년 전 해외출장 내역까지 기록으로 보존, 해당 국가의 물가가 10년 새 어떻게 변했나까지 비교하고, 당일 만난 사람의 인상까지 기록, 갑자기 전화왔을 때도 쉽게 기억을 되살린다.
- **겸손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 = CEO와 회사 주변식당에 가면 콩나물 한 접시라도 늘 더 얻어먹는 경험을 했다. 식당종업원들에게도 아는 척을 하며 친근하게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겸손은 만병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한다. 장수 CEO들일수록 목에 기브스를 하고 있기보다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손님을 배웅하는 등 겸손한 자세를 견지한다.

제38회 강화군 '강화아카데미' 7월 28일(금)

변해야 산다!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 원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개강해 매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강화아카데미'는 본원과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21세기 비전달성을 위한 학습모임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강화아카데미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강화군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구성하여 강화아카데미가 지역적 소양함양과 더불어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7월 28일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제 38회 강연을 해주신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 원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북경제 발전방향, 강화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정보를 이곳 강화도에 계시는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화는 역사적으로 환황해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던 길목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려에서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강화도를 일컬어 '은둔의 섬'이다, '보존해야 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강화도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던 기간은 불과 해방 후, 6.25 이후 5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을 제외한 전 역사에 있어서 강화도는 한반도의 환황해권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이라는 책을 보면 1123년에 송나라 사신 서공(徐兢)이 고려 여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책에는 서공이 3월에 출발하여 8월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공은 대부도를 자연도라고 했고, 영종도를 함굴, 석모도를 용굴이라고 하면서 이곳들을 거쳐 전주, 청주, 광주부사의 대접을 받고 인천으로 해서 강화도를 거쳐 예성강(禮成江)으로 갑니다. 당시 강화도는 굉장히 중심지였습니다. 환황해권 길목에 있어서 바쁘게 움직이는 지역이었죠.

강화는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고려시대 때 무역도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요나라, 몽골과 대치국면이었고 송나라를 황제국으로 칭하던 시대인데, 이때의 강화도는 문화적, 정치적, 교육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적 측면에서는 송나라와 비단, 문방구 등을 교역했습니다.

서공이 대부도, 영종도를 거쳐서 왔던 이유는 북쪽의 요나라 등과 대립 상태였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 해상수송로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물론 대식국(大食國, 당·송대 아라비아), 교지국(交趾國, 베트남 하노이의 옛지명), 석라국(石羅國, 석국인 타쉬켄트로 추정되는 지역) 등도 강화도를 거쳐서 예성강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의에 의해서 강화도는 은둔의 도시이고 앞으로도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접해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요된 의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에 강화도가 경제자유구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권, 강화권, 개경권이라고 표현되는 이 지역은 하나의 공동생활체였는데, 개성부터 인천까지의 지역들이 다시 옛날의 영화를 되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벽란도(碧瀾渡)를 중심으로 강화를 통해 한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 개경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6.25 이후 이 지역은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이 없습니다. 휴전선이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기는 양쪽의 허가를 받으면 민간인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이곳은 고려로 가던 길이었고, 조선시대 양곡(洋谷, 곡(串)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미래에 다시금 그렇게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지역은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렇다'라고 강화도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

김광호 원장

1954년 생으로 원광대를 졸업하고 IAA(국제광고인교육) Diploma를 취득했다. FALIA(아시아보훈진흥재단) 마케팅과정과 영국왕실 골프협회 주최 R&A 골프프레프스쿨을 이수하고 현재 국내 각 기관 및 기업체 강의와 골프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골프@마케팅>, <골프에서 배우는 경영> 등의 저서가 있다.

고 스스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곳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이곳이 중심지였음을 상기하고 그것이 자신감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 다시 돌아와 북한으로 진출할 것 강화는 개성과의 거리상 교역의 지렛대 역할 할 수 있어

현재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8천억 달러의 규모죠. 예전에 30위, 50위권이었을 때보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리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일본, 중국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미국의 경제규모가 12조 달러로 우리의 15배 정도 됩니다. 아직은 비교하기 힘든 상대죠. 일본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1/3 정도인 4조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의 6배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9위, 8위도 가능하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7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지렛대가 바로 인천,



강화, 개성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을 홍콩에 비교하면 개성은 심천이라는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 인천권, 수도권이 갖는 역할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개성과의 거리를 고려하면 주목할 곳은 바로 강화가 됩니다. 강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성, 인천이 우리가 세계경제규모 9위, 8위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강화와 인천에 있어 북한이 진짜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88서울올림픽 이후 대규모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임금이 2~3배 정도 올랐습니다. 올림픽 당시 우리 국민소득이 4천 5백 달러였습니다. 중국은 전국 평균 1천 달러가 안 되지만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 문제로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 기업체들 때문입니다. 주로 인천이나 수도권의 기업이 90년대 중반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북경올림픽이 끝나면 중국도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등의 문제도 생기겠죠.

결국 10년 전에 중국으로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

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필요한 것이고 해주, 남포, 평양, 신의주, 원산, 남산봉, 천진까지 1억 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령 청도 같은 곳에 산업단지만 6천만 평이 개발되고 이미 언급했던 지역에 산업단지가 형성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 면적은 2억 2천만 평 정도 됩니다.

세계의 흐름 속에서 위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10년 후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 5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때 북한은 최소 2천 달러나 5천 달러 정도 혹은 1만 달러 정도 돼야 통합에 불편이 없어요.

천년 전에 중심지였던 강화도가 2020년 혹은 2030년까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한의 발전으로 10년 전 중국으로 간 기업들이 중국 연안지역을 발전시키고 다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북한으로 가게 될 바로 지금의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가 역사의 중심지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연계한 산업 발전시켜야

왜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두바이, 싱가포르, 파리공항보다도 낫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지정학적 이점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등과 붙어 있지만 현재 33.5시간 내에 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하루 생활권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인천공항은 많은 항공로를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은 여객량 2천 6백만 명으로 세계 10위입니다. 이보다 앞선 공항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홍콩 등입니다. 인천공항이 5천만 명이 되면 세계 5위가 됩니다.

화물의 경우는 세계 2위입니다. 현재 세계 1위의 화물운송을 자랑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송량이 200만 톤인데 여기에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개성 등지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세계 1위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산업단지를 건설 중이고 영종도에 자유무역지역을 만들고 김단산 산업단지를 조성중이며, 김포에 항공산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겁니다. 화물이 2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객의 경우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객부분의 환승률은 13%이고, 화물의 환적률은 50%입니다. 따라서 환승을 늘려야 여객도 오르게 됩니다.

강화와 인천공항은 매우 가깝습니다. 바로 이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공항 주변에 섬이 많은데 이곳에서 3~4시간 놀 수 있는 곳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두바이의 경우는 섬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강화도, 석모도 등 섬이 많으므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면 1억 명까지 늘려서 여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인천은 강화도에 손짓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천공항의 약점, 바로 여객이 약하다는 점, 이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과 광양, 부산, 진해, 제주도가 있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은 항만, 국



제무역중심지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이에 반해 광양, 부산 등에는 공항이 없고 제주도의 경우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강화도는 레저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면 요트 등의 해양레저가 발달하게 됩니다. 해양레저를 발전시킬 조건을 강화도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이 개성, 김포 쪽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해양레저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때문에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싫어도, 좋아도 역사는 다시 반복됩니다. 중심지였던 강화가 50년간의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림을 작성할 때 성공 가능성은 더욱 증가됩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쪽으로 신항만이 들어섭니다. 공항과 관문 북항과 신항만이 있어도 5항만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면 해양레저가 발달하게 되므로 석도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거나 요트 정박시설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수도권 2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해요. 한강의 마포에서 요트를 타고 나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5항만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 주도하에 있고 영종도는 인천과 중앙정부, 토지공사의 관할 하에 있고 이곳 강화는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는 4항만, 북항부터 신항까지 관통하며 청라에서 검단, 김포까지 연결되므로 현재의 다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평역까지 지하철 7호선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청라 경제자유구역까지 끌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남북간 교역량 증가로 해상수송로 역할 중요해질 터 기업유치 위한 강화이미지 재인식 시켜야 할 때

현재 우리와 북한의 교역량은 10억 정도입니다. 경제성장 측면에 있어 우리가 북한과 경제교역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됩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량은 우리의 2~3배 정도 되는데, 빨리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북간 교역량이 100억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남한과 북한은 매우 밀접

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미사일 실험과 같은 사건을 벌여 긴장감을 조성하지 말고 개성부터 인천 등지의 유기적 연합을 이룩하고 개성공단, 해주공단, 남포, 신의주 등 서해안에 7천 5백만 평, 동해안에 6천 5백만 평, 총 1억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해상수송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강화의 의미는 더욱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발전하고 강화가 발전하고 이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권의 산업단지 분포를 거시적으로 보면 강화도의 코앞까지와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경제자유구역에 의료특구가 있는데, 결국 우리 쪽은 강화가 의료특구의 최적지입니다. 강화첨단산업단지와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나타난 강화도를 봐도 그렇고 국제물류, 관광산업벨트도 강화도에 걸쳐있습니다. 정부정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성장관리권역은 파주에서 강화로 되어있습니다. 파주는 최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강화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의료특구에는 병원, 재활원, 학교, 연구소, 바이오산업단지가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의료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추진하고 있지만 강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의 유치전에서 경합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관점과 거시적 담론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서해안의 긴장완화가 남북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 강화입니다. 강화와 파주 중에 북한하고 어디가 가깝습니까? 비슷합니다. 단지 파주는 서울까지 한 시간 거리라는 점입니다. 파주가 유리한 조건은 열차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강화와 파주의 관계를 비교해 봅시다. 인천공항을 생각해 보면 인천공항은 강화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배후의 부품산업단지도 강화가 뛰어나습니다. 파주도 이곳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등등을 검단이나 그런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강화로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노력해서 강화를 재인식시키고 로비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야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강화에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강화의 인구가 2015년에는 10만이 될 수 있습니다. 1965년에는 10만 넘었던 적도 있어요. 면적이 인천과 같기 때문에 어찌면 30만도 가능할 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런 각도에서 개성과 가깝고 해양레저부분 등 이점이 많은 강화도,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사람이 살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등 발전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경쟁하십시오.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먼저 달성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림을 인천이나 정부가 아닌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야 합니다.

10만까지 인구가 늘어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활기찬 강화를 만들어 봅시다. 강화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人間)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Hippocrates Oath

이제 의사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다음과 같이)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험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게 새겨진 비석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61번째 맞은 광복절 기념식사에 거론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를 되새기면서 경성제국대 의학부(서울대 의과대학) 뜰에 세워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비석은 함춘원지와 함께 나의 마음을 근대 조선의 슬픈 역사에 대한 감상에 깊이 빠져들게 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60~377, 그리스에 살았던 2500년 전의 의사로 그리스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에 길이 남는 '의학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분이다. 그가 가진 의사로서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사명감은 시간과 함께 없어져 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아니 후세에도 영원히 생생하게 살아 남아 인류의 건강을 위한 등대가 되고 밝은 햇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에 서있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비석은 역사적 유물이 아니고 바로 21세기의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말해주고 있듯이 서울대의대 출신들이 의사라는 신성한 직업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한국을 의료선진국으로 성장하게 하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의학자요 의사로서 금년에 타임지가 세계 의료계 명인으로 선정한 하버드 의대 김용 교수와 같은 한국 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지 않은가.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하고 의학교수가 돼 성공한 박세록 교수는 의학교수로서의 명예와 신분, 풍요한 삶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뒤로하고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질병과 무지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일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를 떠올리게 된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사랑의 정신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승화되어 장기려 박사와 같은 한국의 슈바이처들의 가슴속에 살아 영생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숭고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직업분야에서 인간, 생명,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히포크라테스들의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생명의 최대 비극은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데 있다"라는 윌리엄 서머셋 모옴의 교훈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재밌게 보자. **人間**



1982년 7월 23일 서울대 의대 졸업 20주년 기념으로 36회 졸업 동기생들이 뜻을 모아 세운 비석에 최향씨의 글씨로 새겨진 선서 비문이다.

지난 8월 20일 故 강원용 목사의 유해가 안치된 서울대병원에 문상을 다녀왔다. 문상을 마치고 전철을 타기 위해 병원 뒷길을 산책 삼아 걷다가 함춘원지(含春苑址, 지정번호 제237호)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 동안 한 번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함춘원의 경모궁(景慕宮) 옛터에 단 하나 남아 있는 함춘문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문을 보고, 조선 후기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경모하기 위해 창경궁의 동쪽 후원 함춘원에 그 사당을 옮겨짓고 제사를 지내다가 조선조 말 광무 3년(1899년) 11월에 사도세자를 장조(莊祖)로 높이고 신위를 종묘로 모셨다고 쓰여진 안내문은 조선조 후기 역사에 문외한인 나를 크게 일깨워 주었다.

그 후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한 일제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1924년에 함춘원 터이자 경모궁 자리에 경성제국대학의 학부를 세우면서 경모궁의 건물은 거의 없어지고 남은 건물마저 6.25때 소실되어 오직 함춘문만 남았다고 한다. 의과대학 동창회관의 이름이 함춘관으로 불리는 역사를 알게 됐고 바로 그 옆에 서울의대 36기생들이 졸업 2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서예가 최향의 글씨로 아름답

살아있는 이유를 만들며

조동춘 (사)밝은가정협의회 회장



내 나이 60, 아직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나를 할머니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넉넉잡아 20여 년 있으면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할 것 같다. 지나고 나니 살아온 인생 60여 년의 일들이 다 엇그제 같이 느껴지는데, 살아갈 인생이 20여 년밖에 없다고 생

각하니 초조한 마음마저 든다. 어찌겠는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 80여 년의 인생이 마감되고 마는 걸.

사람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멋에 산다지 않았던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세간의 말로 축복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 살기가 고달프다는 증거일 것이다. 육신이 몹시 고달플 때면 맹목적으로 사는 짐승들을 부러워하는 때도 있다. 내 심정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사서 고생을 하는 셈이다. 밥이나 세기 먹고살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면서 편하게 살았다면 지금처럼 고달프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도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멋에 살고 있다지 않던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역할을 충실히 해보겠다고 몸바쳐 뛰다보니 잊어지고 자빠지면서 곡예를 해 온 것이다. 단순한 삶을 거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살아있다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 법
역할수명과 자연수명이 동등해져야
이상적인 삶 누릴 수 있어**

사람에게는 자연수명과 역할수명이 있다. 몇 살까지 생명이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자연수명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 생명의 애착 때문에 모두 오래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원대로 150살을 산다 해도 역사에 한 줄 기록되어지지도 못하고, 더불어 사는 가족이나 후손에게 인기도 없고 대접도 받지 못하는 걸. 맹목적인 생명에 대한 집착이며 애착일 뿐이다. 하지만 살아 있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법, 이것이 역할수명이다.

내가 아는 사람은 45세까지 평생 쓸 돈을 많이 벌어놓고 하던 일을 접고 운동과 여행을 하며 여유롭게 살고 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생활이다. 이때금 친구들을 불러 맛난 음식을 사며 그 동안 재미있게 놀고 여행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의식적으로 물어뜯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무의식적으로 자꾸 물어뜯어 몹시 고통스러워하던 어느 날 그는 병원을 찾았다. 물어뜯은 손톱을 보며 의사가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물어뜯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물어뜯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뜯지 않으려고 손을 깔고 앉아 있어도 어느 새 아파서 보면 손이 입에 가 있습니다." "실례지만 뭘 하는 분이신데요?" "예, 전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사십니까?" "예, 사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매달 생활하고 남은 돈이 나오니까요." 그때 의사는 무릎을 탁 치며 원인을 찾았다고 했다.

그가 말한 원인은 떳떳하지 못한 삶에서 비롯된 습관이라고 했다. 그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떳떳하지 못한 삶이라고 했을까? 그 의사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내면적인 갈등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그가 만일 80세에 죽는다면 '그는 45세에 죽고 80세에 묻히다'라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자연수명은 있어도 역할수명이 없다면 이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이미 끝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인간의 삶은 역할수명에서 찾을 수 있고 역할수명을 자연수명과 동등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나이 들어 편히 쉬는 것은 좋지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것**

조동춘 회장

조동춘 회장은 1976년 사랑받는 아내를 제창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밝은가정 만들기 운동을 30년간 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언어문화원 이사, 민족정기회 이사, 해외한민족연구소 이사, 동북아문화교류촉진회 상무이사, 중국 요녕대학교 명예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1947년 생으로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인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이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연금으로 상류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후진국을 돌아다니며 정착할 곳을 물색하였다. 마침 필리핀에서 그 돈으로 상류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한국을 떠났다. 그들은 하인을 두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현지까지 쫓아가 취재를 해온 테이프를 방영하여 일반 국민이 알게 된 일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일을 했고, 한국에서 주는 돈을 받아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땅이 아니면 어떤가.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만큼 지도에 없는 영토가 확장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곳에서 산다면 그곳에서 생활비를 조달해야 된 것이다.

미국에 이민간 우리 교포가 나이를 먹으니 모국이 그리워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미국에서 주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다보니 한 달에 한번씩은 미국에 가야 된다고 했다. 가지 않고 있으면 연금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행을 하며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할 정도면 미국 정부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때문이었다.

특별한 애국자는 아니더라도 늙은 몸들이 스스로의 안락함을 위해서 국고를 축내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젊어서 열심히 일했으니 나이 먹어서는 편히 쉬면서 살자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65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은 죽는 날까지 편히 즐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왔다. 97년 IMF 통제하에 경제상황이 놓였을 때 나는 100일을 놀아보았다. 쉬엄쉬엄 일을 하게 되자 나는 본격적으로 100일을 정해 놓고 휴가로 즐길 작정을 했다. 100일, 말이 쉽지 100일을 논다는 것은 지옥이었다. 고달프게 일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일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이 딱 맞았다. 그 후 나는 65세 이후에 할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의 를 하는 일은 65세로 종을 쳐야 한다. 왜냐하면 틀니도 하게 될지 모르니 발음이 분명하지 못할 것이고, 다리에 힘도 없어서 앉아서 하고 싶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그만 두어야 내 강의에 대한 잔존효과가 좋은 평으로 오래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할 일은 모든 이들의 친정어머니가 되는 것

희전장원(熹田醬園)에서

친정어머니의 손맛 장맛 보여주는 일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

평생 동안 '밝은가정만들기' 운동을 해온 내가 나이 먹어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변칙 내 머리를 스

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모든 아내들의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달플 때, 언제나 찾아와서 푸념을 실컷 늘어놓고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가 자신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친정어머니, 내가 노후에 할 마땅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친정에 왔다 가면 먹거리의 기본인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아 싸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나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에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청정한 계곡을 잡아 농가주택도 하나 지어놓고 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어머니 생전에 먹어보던 그 장맛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나는 기뻐서 첫 해에는 한 가마니를 담아 나누고, 다음 해엔 여섯 가마니를 담아 나누고, 그 다음 해엔 스무 가마니를 담아 나누었다. 그 후에 백 가마니, 이백 가마니를 담아 3년을 숙성시켰다.

나의 아호인 희전(熹田)을 따서 희전장원(熹田醬園)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할 나의 일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 대관령 덕장에서 말린 황태를 사서 곱게 부서 황태고추장을 만들었다. 평창의 깊은 산에서 캔 더덕을 절구에 퉁퉁 찧어 더덕고추장을 만들었고, 청정한 남해바다의 다시마를 부수어 다시마고추장을 만들었다. 먹어본 사람이 추천을 하여 인기를 얻게 되었고,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팬데믹 잡아 가날프던 내 손은 마디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우악스런 사내 손처럼 거칠어 졌다. 양주동 박사 생전에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손은 일을 해서 거칠어진 손이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났다. 아마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올 추석부터는 여러분들과 나누려던 그 많은 장들이 삼시간에 퍼부은 집중호우로 계곡 물이 불어 폭탄이 터지듯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 버렸다. 거칠어진 내 손을 자랑스러워할 사이도 없이 무(無)가 되어 버린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설렘까지 수마(水魔)가 휩쓸고 갔지만 나는 다시 고달픈 삶의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싶어서이다. 아울러 이번 수재를 극복하도록 친구와 친지, 동창들이 위로금을 모아 주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 다시 일어서서 구수하고 푸짐한 친정어머니의 손맛 장맛을 다시 보여주며 살아가려 한다.

자연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우리나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조그만 역할이라도 지속하려 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고 보람이 될 터이니까.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서울 코리아나미술관(회장 유상옥)**은 올 1월 세상을 떠난 거장 백남준을 추모하고, 그의 예술세계를 회고하는 백남준 소장전을 7월 13일 ~ 9월 9일까지 코리아나미술관 C gallery에서 선보인다. 전시에는 백남준의 비디오조각, 로봇시리즈, 드로잉, 판화 등 총 50점이 나오고, 백남준의 주요 퍼포먼스, 인터뷰를 편집한 영상자료가 함께 상영된다. 전시작은 모두 코리아나미술관 소장품으로, 작가의 앞선 상상력과 풍자정신, 유머를 읽을 수 있다.

• **손경식(홍익삼경개명원 원장)** 회원은 지난 5월 9일 용사의 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서예문화 원로총연합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월로총연 창립기념으로 "원로총연 창립서예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전시기간 : 10월 20일 ~ 10월 26일

· 전시장소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프라자 전시관(중로 연건동 대학가)

• **(주)웰코스(회장 김상희 / 사장 김영돈)**는 대를 이어 무역협회 이사직을 맡아 무역협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점이 인정되어 한국무역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7월 28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명숙 부총리,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성황리에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정의승(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사장)** 회원은 지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강원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수재의연금 1억원을 기탁하였다. 정의승 회원은 고향인 강원도청을 방문 김진선 지사에게 지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위로의 뜻과 함께 의연금을 전달하였다.

• **한러친선협회(회장 유종하 / 이사장 장만기)**는 러시아정부와의 국제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러시아대사관으로

부터 메달을 수상하였다. 글레브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대사의 초청으로 8월 9일 주한러시아대사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안상수 인천시장과 함께 유종하 회장이 메달을 수상하였다.

• **광동제약(회장 최수부)**는 지난 8월 11일 열린 '월드 바스켓볼 챌린지(WBC) 2006'을 공식 후원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스폰서 금액은 10억 원으로, 광동제약은 대회 공식 타이틀 사용권과 광고 이벤트 등 마케팅 권리 일체를 받았다.

• **우리은행(회장 황영기)**은 서울 명동의 금융플라자 앞에서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 달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지난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태극기를 아끼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3천여 명의 고객에게 가정용 태극기와 팜플렛을 배부했다.

• **삼화페인트(부사장 윤석영)**는 친환경 도료로 알려진 수용성 도료를 휴대폰, LCD-TV에 적용하였다. 휴대폰에 쓰이는 외부코팅용, 내부중착용 도료에서 LCD용 고굴절 도료 등이 주요 제품이다. 삼화페인트는 휴대폰용 수용성 도료에 이어 가전제품용 수용성 도료도 개발 중이다.

• **리스크매니지먼트 내진설계 회사 (주)에코닝과 (주)삼익 THK(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가 공동 개발한 '전산기보호시스템'은 현재 내진약세스플로어, 전산기기 보호장치와 관련해 특허 및 실용신안 5건을 신청한 상태이며, 면진구조설계의 핵심인 '적중고무면진장치'는 2년 동안의 개발 끝에 국내 최초로 지난 8월 일본에서 제품인증을 받았다.

• **(주)대교(회장 송자)**와 한국초등학교축구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잔치 '2006 대교눈높이 초등학교 전국축구대회'가 지난 8월 14일 개막하여 11일간의 열전을 벌였다.

• (사)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이사장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는 9월 6일~12일까지 7일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에서 "2006 월드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국미술의 세계화와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세계미술 교류전은 세계 27개국 80여명의 해외 화가들과 국내의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분야 작가 9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 공한수 Big Dream&Success 사장은 지난 8월 21일, 22일 양일간 국민은행 동부산지역에서 지역본부 직원들과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비전은 가슴을 뛰게 한다" 및 "변화 혁신과 가치창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소모임 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옥)은 8월 모임을 연구원 회원친 선행사로 마련된 '국정원 김승규 원장 초청행사'로 대체하여 많은 회원들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 차이나클럽(회장 홍순영 / 사무총장 이두호) 9월 행사로 '한중경 제력력대표단'을 9월 1일 ~ 9월 5일까지 주최하여 중국 길림성의 초청으로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차이나클럽 회원뿐만 아니라 각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동신선박주식회사	강부부 회장	9월 1일
NYK(LINE)CO.LTD	이윤수 고문	9월 1일
유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9월 1일
창영전자	박세근 사장	9월 2일
주5일넷(주)	김봉중 대표이사	9월 15일
주5일넷(주)	이용원 대표이사	9월 15일
(주)한철상사	조병철 사장	9월 15일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 20일
원자력안전아카데미	황경호 이사	9월 30일

■ 신규회원



성평건 제이스텝 회장 (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송파구 송파동 9-10 조이B/D 1층
- 전 화 : 02-415-2340
- 팩 스 : 02-425-2374
- 업 종 : 수출, 기술개발, 도소매
- 주생상품 : 레민다 파동 육각수, 파동상품
- 추 천 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조옥환 삼우중공업 대표이사(개인회원)

- 주 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 전 화 : 02-2692-1311
- 팩 스 : 02-2691-4888
- 업 종 : 제조, 건설
- 주생상품 : 판넬
- 추 천 인 : 이시원 회원(부천(주) 사장)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企業體 및 團體의 任員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신청서는 별도 첨부) 회원납입(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 개인회원 : 年 1,000,000원 (1인)
- 법인회원 : 年 3,000,000원 (3인~5인)
- 특별회원 : 年 5,000,000원 (6인이상)

• 재외거주회원

- 개인회원 : 年 \$ 1,000 (1인)
- 법인회원 : 年 \$ 3,000 (3인~5인)
- 특별회원 : 年 5,000 (6인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 하나은행 (국내계좌) : 102-910003-99904
- 우리은행 (외화계좌) : 132-055539-41-502
-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지자체소식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500회 특강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전남 장성군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지난 8월 24일 500회를 맞았다. 역대 강사와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장성군>의 저자인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은 "장성군의 재창조"라는 주제로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기념특강을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기념사에서 "아카데미를 일군 김흥식 전 군수에 감사드린다"며 "혁신행정으로 널리 알려진 장성군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고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 잘 사는 장성을 만들자"고 말했다. 기념특강에 앞서 유 군수는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과 양병무 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지방자치아카데미 신규개설 - 충북 진천군, 전남 고흥군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국 자치단체의 공직자와 각 단체의 지도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

하고 교양을 익혀 자기계발과 지방자치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충북 진천군(군수 유영호),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지방자치아카데미를 개설한다.

개강 강연으로 전남 고흥군은 9월 8일 서상록 회장(서상록닷컴 회장)을 모시고 "21세기 이제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하며, 충북 진천군은 9월 15일 허신행 전 장관(前 농림부 장관)을 초청하여 "새로운 문명사회의 진단과 예측"이라는 주제로 개강 강연을 할 예정이다.

• 여수시, 2012세계박람회 홍보봉사단 출범

여수시(시장 오현섭)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홍보자원봉사단이



8월 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각계 각층의 시민 132명으로 구성된 홍보자원봉사단은 이날 선서를 통해 "박람회 유치 홍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세계박람회 유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결, 질서, 친절, 봉사 등 엑스포 4대 시민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 김제시, '지평선축제' 9월 20일 개막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농경문화체험 축제로 2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제8회 김제 지평선축제'를 9월 20일~24일까지 닷새간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한다. '벼고을에 깃든 농경문화! 활기차고 신명나는 지평선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공연행사와 전통문화 및 농촌 가을걷이 체험 등 모두 79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 양양군, '양양송이축제2006' 국제축제로 발돋움



양양군(군수 이진호)이 '양양송이축제 2006' 시행계획을 최종확정,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본격적인 축제준비에 들어갔다. 양양군은 양양송이축제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남대천둔치 및 양양시장 일원과 송이산지에서 축제를 열기로 했다. 특히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대폭 확대 마련하는 등 양양송이 이미지 제고 및 축제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기로 했다.

■ 연구원소식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친선행사 - 국가정보원 방문

김승규 국가정보원 원장(전 법무부 장관, 1386회 연구회 강사)은 지난 8월 25일(금) 인간개발연구원 임원 및 회원 80여명을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정목표달성과 국가안보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치열한 정보활동을 펼쳐 정보강국을 만드는데 중심 축을 이루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참가한 회원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실제 권총사격을 해보고 안보전시관을 둘러보는 등 교류의 시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찬을 즐겼다.

초청해주신 김승규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MI & YOU



효과적인 퍼스널리더십의 감동

안효열 LMI FT

우리 모두가 리더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현재의 우리 모습보다 더 성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푸는 해결 방식을 선뜻 받아들여 적용하는데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 가치 있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사단과 군단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군부대 최고 지휘관들과 함께 한 EPL 과정에서는 군부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혁신을 위한 리더십과 코칭의 접목으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군부대에서 시작된 리더십 과정은 장군의 입장에서 수천, 수만 명의 병사들을 실제적으로 지휘, 통솔하는 리더로서 현장에서의 모든 일이 리더십과 관련된 일인 것을 감안하면 군에 리더십 프로그램(EPL)을 접목한다는 것이 대단한 부담을 갖게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직된 것으로만 알려졌던 군부대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이미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히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의 리더들이 배워야 할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은 오히려 기대감과 친밀감으로 다가서게 되었다.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는 부담을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꿔주는 군 홍보대사가 되어 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쁨도 갖게 되었다.

EPL은 처음 과정을 시작할 때 16주 과정이라는 것에 참가자들은 부담을 갖고 출발하였지만 수료할 때는 어느 한 분 빠짐없이 아쉬움을 표현하며 그 동안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극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리더들에게 '효과적인 퍼스널리더십으로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기며 도울 것이다.'



EPL 과정 중 수강생들의 강의 소감을 옮겨 본다.

▷ "고통이나 실수 없이는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 우리가 계속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 인생을 걸고 실수를 감행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부하의 실수에 대해 관용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실수 없이 배울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업무(혁신관련)를 창의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다 과감해지고 포용력을 넓혀가게 될 것이다. 인생이란 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워 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학습을 통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 책을 매일 30page씩 읽으며 지식을 습득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365일×30page, 한 권이 평균 250page라고 가정하면 약 44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어느 순간부터 사명선언서, 인생의 6대 영역, 그리고, Self-Image, 자기확신과 소명, 그리고 목표설정과 시각화 등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는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갈등과 분노와 실망 그리고 희망과 자신감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딛고 성공과 자기 확신을 통한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정직하려고 노력했다. 비판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약이 됨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와 같이 참여한 동료의 성공과 행복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것이 모임에 임할 때마다 느꼈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었다."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73기 수료식

- 일 시 : 8월 9일(금), 오후 6시
- 대 상 : 73기 수료자 7명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 지 도 : 안효열 LMI FT

• 숙명여대,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FT 1기 수료식

- 일 시 : 8월 11일(금), 오후 4시
- 대 상 : 숙명여대 교수 9명
- 장 소 : 숙명여대 백주년 기념관
- 지 도 : 안효열 LMI FT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FT 1기 수료식

- 일 시 : 8월 11일(금)
- 대 상 : EPL 수료자 10명
- 장 소 : LMI 강의실
- 지 도 : 안효열 LMI FT

•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EPL) 75기 개강

- 일 시 : 9월 19일(화) 오후 7시
- 대 상 : 각 분야 리더, 퍼스널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
- 장 소 : LMI 강의실

■ Big Dream&Success 모임안내

• LMI 80기 수료식

- 일 시 : 8월 24일(목), 오후 4시
- 대 상 : 김봉관 사장 외 9명
- 지 도 : 공한수 FT

• 제35차 월례모임

- 일 시 : 9월 11일(월), 오후 6시 30분
- 강 사 : 이형석 박사 / 한국땅이름학회 회장
- 주 제 : 8천년 고조선역사의 재조명
- 장 소 : LMI 안국동 교육장

• LMI 수료자 정기등산

- 일 시 : 9월 24일(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북한산 (자세한 사항 추후 통보예정)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성공하는 CEO는 헤어스타일부터 다르다

이지수 헤어이미지 컨설턴트

"얼짱, 몸짱 물러나라. 이제 '동안 짱' 나가신대!" 지난 설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S방송사는 이색적인 '동안(童顔)선발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실제 나이 46세의 한 주부가 대상을 차지해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나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 보이는 20대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모든 출연진들이 놀라울 정도의 젊음을 과시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필자는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보다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젊게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고난 얼굴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누구나 헤어스타일은 바꿀 수 있고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매력적인 인상을 갖기 위한 의도적 재설정, Hair 성공한 사람들은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한다

Hair(머리)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흔히 미용실, 디자이너, 퍼머, 염색 등을 떠올리거나 우리의 두뇌를 보호하는 신체의 일부라고 여기기 십상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미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머리카락은 하나의 숲, 그것도 매혹적인 숲이다"라고 말했다.

필자의 Hair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Hair는 'Human Attractive Image Remodeling!(인간이 가장 매력적인 인상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인 재설정)'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머리를 다듬지 않았다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은 땅아 올리거나 남성들은 상투를 틀었을 것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위해 헤어를 경영하고 있는 셈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3선에 성공한 총리다. 그는 3선을 위해 유세 때 두 달 동안 330만원을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썼다고 한다. 유세장을 오가는 그의 전용기에는 유명스타일리스트가 동승을 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일까? 물론 당선을 위한 이미지전략이다. 영국 왕실의 권위가 실추하면서 얻은 '해가 늙어 가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늙음을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연출한 것이다.

천재공학도로 유명해진, 더벅머리에 얼굴전체를 뒤덮은 까만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빌 게이츠. 지금은 짧게 자른 머리에 염색을 하고 세련된 안경을 쓰고 세상의 성공브랜드 MS사의 회장이 된 빌 게이츠는 CEO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는 '골든블랙슈트'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평소 캐주얼한 의상을 즐겨 입는 빌 게이츠지만 공식석상이나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때는 반드시 블랙슈트를 입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표이다.

이 시대의 여성리더로 불리는 한나라당 전 총재인 박근혜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는 '올림머리'다. 한때 높이 올려진 머리를 살짝 내림으로 정치적 행보의 방향으로 추측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매일 아침 25분씩 자신의 머리를 손수 만진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 총리 율리아 티모셴코도 매일 아침 40달러를 들여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새둥지머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대 국회 보궐 선거 때 평상복을 입고 의원선서를 해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한 정치인은 장관이 되면서 헤어스타일이 급작스레 돌변해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다. 야원 얼굴에 앞머리를 내려 날카로워 보이던 그가 '2대8' 가르마를 타 넘긴 단정한 머리를 하고 깔끔한 양복을 입고 까만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나타난 것이다. 평소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그의 이미지가 청문회를 하는 의원들과 그를 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준다"는 말처럼 상황에 걸맞는 이미지



를 연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머리를 완전히 뒤로 빗어 넘긴 '올백스타일'이 다소 권위적인 인상을 풍긴다는 지적이 있어 머리모양을 바꾼 K 전 총리. 좀 더 젊고 세련된 경륜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 탈바꿈 전략으로 '6대' 가르마로 바꾼 그를 보고 언론은 친국민 대권행보 강화 의지로 해석했다. 같은 헤어스타일을 해도 속사정은 다르다. 벤처캐피탈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 CEO는 16년 동안 '올백머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유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경영자가 되어 어려 보이지 않기 위해 올백머리를 한 것이다. 과거에는 어려 보이는 것이 무게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기에 자기 연출을 한 것이다. 올백머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은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올백을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는 일과 스타일이 다르지만 헤어스타일이 성공전략이며 보통의 사람들이 흉대하는 머리를 예사롭지 않게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헤어스타일은 '성공을 향한 의도적인 상황설정' 당신의 성공 헤어브랜드를 만드는 TOP전략 - 트렌드(Trend), 여건(Occasion), 파워(Power)

사람은 눈으로 듣는다고 하지 않던가! 사회 경쟁력의 하나로 외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능력 있게 보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다. 결국 스스로가 상품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질 좋은 제품도 상품이 되려면 디자인이 우수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디자인해야 한다. 우리의 얼굴에는 대표 근육 40개가 있는데 어느 것을 쓰냐에 따라, 발달시키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얼굴에서 75% 이상의 영향력을 차지하는 헤어 즉, 머리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성공이미지가 결정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브랜드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부터 브랜드는 아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놀라운 가공능력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CEO.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 결재만 하던 근엄한 경영자의 모습을 그리지만 글로벌 경영시대에 걸맞게 외부인사들과의 미팅이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자신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CF출연까지 하는 CEO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당신도 당신의 헤어브랜드 만들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CEO를 '시(示) 이(異) 오(傲)'라고 정의한다. 조직의 리더인 CEO는 '남다른(異) 카리스마(傲)가 보이는(示)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답구나!" 하는 느낌을 자아내는 성

공하는 리더의 헤어스타일 연출전략을 소개한다. 바로 '정성'을 뜻하는 'TOP전략'이다. 여기서 TOP이란 T:트렌드(Trend), O:여건(Occasion), P:파워(Power) 즉, 카리스마를 말한다. 그러면 TOP전략을 하나씩 챙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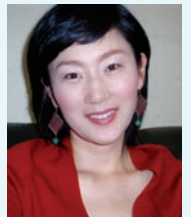
첫째, 트렌드다. 제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일지라도 헤어연출이 시대에 뒤떨어지면 정통보수파 경영자로 각인 되기 쉽다. 올백머리를 위해 80년대 사용하던 무스와 젤을 사용한다면 즉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헤어왁스로 바꿔라. 머리카락이 두껍고 힘이 셀 때는 왁스를 바른 후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된다. 또한 남성도 장발이 유행인 시대, 차치 남성 CEO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귀밑에서 목 뒷부분의 속살이 흰히 드러나는 기계커트는 피한다. 또한 남성에게서 안경은 두 번째로 중요한 패션임을 잊지 말라. 여성 CEO들은 되도록 긴 머리의 아름다움보다는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의 볼륨커트나 단발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둘째, 때와 장소의 여건이다. 고급스러운 장소에서의 비즈니스를 위한 만남이라면 진한 감색슈트에 화이트 또는 블루셔츠를 코디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신뢰감을 형성하기에 좋다. 넥타이는 포인트로 젊음을 유도해라. 이 때 한 올의 머리카락에도 흐트러짐 없이 고정하는 것이 좋다. 부담없는 지인들과 친교의 모임을 가질 때는 의외성(?)을 담아라. 올백머리를 하던 사람도 그날은 왁스와 젤을 전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캐주얼 의상을 코디해 보자. 당신의 센스가 인정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셋째, 파워다. 부드러움과 감성이 경영의 코드라 할지라도 리더는 카리스마를 지녀야 한다. 당신의 카리스마는 앞이마를 드러내는 앞머리 모양에 달려 있다. 이마를 가르듯 흘러내린 앞머리는 자신감이 없다. 올백머리가 아닌 가르마형의 머리에도 당신의 파워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다면 반드시 앞이마를 드러내라. 인상학에도 앞이마를 드러내는 것이 운을 불러들이는 연출이라고 한다. 이제 이마가 흰해지는 탈모로 고민중인 CEO가 있다면 당신은 좋은 운의 소유자라고 여겨라. 여기에 자유분방함과 특별함을 가지고 싶은 CEO라면 앞머리에 과감하게 '블리치'를 넣는 퍼포먼스도 찬성이다.

성공적인 헤어스타일은 '성공을 향한 의도적인 상황설정'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애브라함 링컨은 "나는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발소로 달려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기름도 듬뿍 발랐습니다"라며 머리를 다듬는 것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도전을 시도했다. 성공은 스스로 설정하기 나름이다.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크기나 색깔이 다른 것처럼 당신도 당신만의 성공이미지를 만들어보아라. 아무에게나 있느냐 누구나 쓰지 않은 근육 '헤어', 곧 당신은 특별한 브랜드가 될 것이다.

성공하는 CEO는 헤어스타일부터 다르다. **人間**



이지수 헤어이미지 컨설턴트

이지수 미즈바리강 대표는 국내 최초 헤어칼럼니스트로 헤어경영 및 헤어이미지 컨설턴트 분야 전문가다. 대학 및 기업체에서 '헤어경영학'을 강의하며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Hair&Image경영연구소장, Woman Success Academy 대표, 태평양화학 아모스 헤어아티스트그룹 강사, 컨텐츠 마스터 '헤어 공작소' 대표컨설턴트, 남해 미용연구그룹 T.C 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상속·증여 절세방안

김미라 UCS ASSET Consulting 대표

기간 계획을 가지고 상속과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최소화시키면서 자녀들에게 일정규모의 재산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사전증여를 한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증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증가하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도 커져

첫 번째 사례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서 상당한 상속세를 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2세 경영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의 아버님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거의 20년 이상 자신의 모든 열정을 사업에 쏟아 부은 결과 어느 정도 안정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기업은 안정계도에 올려놓았지만, 건강을 돌보지 못한 탓에 지천명(知天命)을 겨우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당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야만 했다.

이처럼 가끔씩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증가된 재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상속인들은 사망의 슬픔과 함께 상속세의 부담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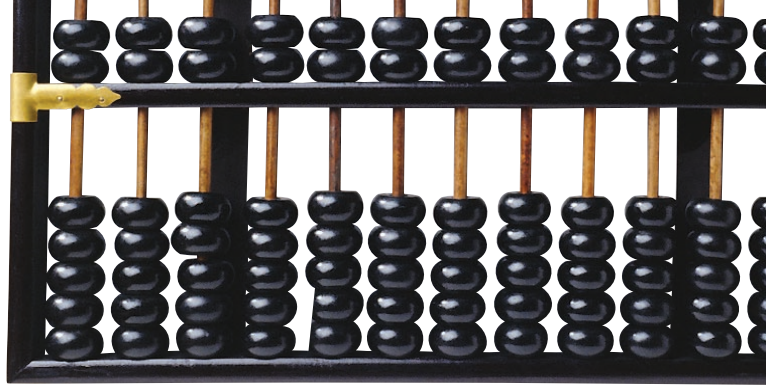
특히, 상속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점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재산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부모가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게 어찌면 인지상정(人之常情)인지도 모른다.

현정부는 모든 부의 무상이전에 세금부과

재산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에는 증여(贈與)와 상속(相續)이 있다. 증여란 증여자가 어떤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주겠노라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법률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에 해당되고,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면 상속에 해당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정부에 들어서는 모든 유형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즉, 혹자는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길 수 없는 노릇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



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의 70~80%로 평가되기 때문에 적게 평가된 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추가적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처분 및 담보제공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 줄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 번째 사례처럼 회사가 크게 성장하였거나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낸 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주식 수가 증가하였거나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서 그만큼의 상속세 부담도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나 사업초기에 증여의 공제범위를 잘 활용하여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사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큰 세금부담 없이 사업을 물려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로, 사전증여를 한 경우로 모 은행의 PB센터에서 세무상담한 내용이다. 타 지점의 PB가 모시고 온 60대 초반의 그 분은 P지역의 보상으로 수십 억 원을 받았다. 그래서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PB센터에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그 분은 수십 억 원을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유인 즉, P지역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그 분의 아버님은 90년대 초에 벌써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보상을 받았으며, 그 동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그 곳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여해야 한다.

사전증여 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생겨 그러나 상속재산의 처분 및 담보제공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해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

증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야

상속세재원 마련 위한 사전 투자도 좋은 방법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누진세율이므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기 때문에 남편 소유의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도 줄어들게 된다.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 증여할 경우에 3억 원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천 5백만 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공제한

다. 증여재산공제도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할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처럼 1세 경영인이 20년 이상 사업을 하였으므로, 10년이라는 주기를 두 번 맞이하게 되고, 이 시기에 배우자 증여와 직계존비속에게 면세점에서 증여하였다면 상속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이 부담할 상속세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놓았다더라면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는 불상사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상속세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상속과 증여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상속과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사망직전에는 되도록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금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출발해야

결론적으로, 재산을 생전에 증여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 후에 상속시킬 것인가의 의사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재산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나이, 그들의 건강상태, 재산의 종류 및 금액, 재산을 받는 자의 수와 구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재산의 향후 가치변화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적극적 세금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그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노력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人問**



김미라 대표

김미라 세무사는 UCS ASSET Consulting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 BMW Financial Korea,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은행, 강남구청 등의 기관 및 기업체에 세무자문을 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지방세 감면위원회 한국세무사회 홍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세계경제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경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지역에서 후진국들은 비교적 잘 나가고 있는데, 구미의 선진국들은 경제도 그리 좋지 않고 정치 역시 그렇다. WTO의 Doha 개발 라운드도 압초에 부딪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아시아지역부터 간략히 짚어보자.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고 잘 나가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이다. 금년 상반기에는 10%를 넘는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8% 정도로 억제하려던 중앙정부의 목표가 좌절되었으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없다. 삼협담의 완공, 청장철도(青藏鐵道)의 개통을 계기로 서부개발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기중에 대비해서 대미, 대일관계의 유화(宥和),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증진, 인도와의 관계개선 등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외자유치의 선별기준을 강화하고, 애국정신의 고취, 역사교육의 강화로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다.

인도경제 역시 그 나라가 가지는 기본적인 강점이 발휘됨으로써, 중국 다음으로 빠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인도는 이륙단계를 거친 비행기와 같이, 고공(高空)을 달릴 것이다. 이에 비해 왕년의 소룡(小龍)으로 주목받던 한국, 대만 및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 등은 그리 좋은 실적을 못 내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10여 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곁들인 저성장을 탈피하지하여, 그 동안 축적된 기술혁신과 대 중국 수출 호조를 배경으로, 상당한 활기를 회복한 것 같다. 그러나, GDP의 160%에 달하는 국가부채는 지금도 1년에 국민 생산의 6%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어 큰 역동성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과거 세계의 환자(患者)로 치부되었던 남미 나라들의 경제회복이다. 브라질은 지난 4년 동안에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켰으며, 대 중국 1차상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그 밖의 남미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을 한 자리 수로 억제하고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등, 과거의 남미 병은 거의 해소되었다. 무엇이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그것은 9. 11 이후, 이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서, 정부의 역할을 되찾아 현실성 있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의 길을 발견한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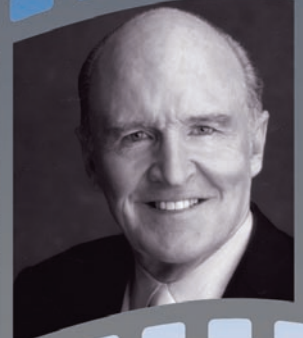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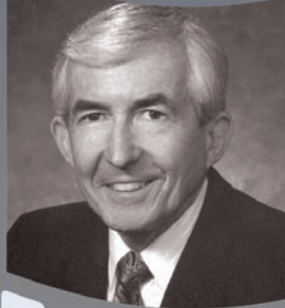
선진권 경제는 큰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거시적으로는 여전히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분배의 양극화가 현저히 심화되고 있다. 유럽경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탈리아, 희랍, 포르투갈 등은 재정적자가 쌓임으로써 일부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IMF신세를 질 나라는 남미나 아시아의 후진국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들이 될 것이라 한다.

어쨌든, 앞으로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는 크게 줄어 갈 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위치는 부동인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세계경제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 같다. 선진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됨과 동시에 후진대국들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판도가 일극(一極)으로부터 다극(多極)으로 변화할 것이며, 글로벌질서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人間**



핵심인재는 성과로 말합니다

귀사의 성과는
앞서가는 인재들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LMI는 70여개국에서 40여년 동안 검증된 리더십 프로그램의 명품입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자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귀사의 핵심 인재를 거듭나게 하는
변화를 위한 인간과학.
보이지는 않지만, LMI의 검증된 노하우와 성실성이 있습니다.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02-2202-8700

아시아나, 8월 24일 중국 다롄(大連) 취항

중국의 떠오르는 경제신도시 다롄으로 매일 출발하는 아시아나 -
중국 비즈니스는 역시 최다노선의 아시아나입니다.



아시아나 더블 마일리지 대축제 (8월 24일~ 10월 31일)

자세한 내용은 www.flyasiana.com을 참조하세요

서울 → 다롄(大連)				다롄(大連) → 서울			
출발	도착	요일	편명	출발	도착	요일	편명
10:40	10:40	매일	OZ3015	11:40	13:40	매일	OZ3025

*상기 시간표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